

# 2017-1

## 신입생-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사례집





# C/O/N/T/E/N/T/S

건강과학대 **1**

**2** 융합과학대

생명과학대 **3**

2017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건강과학대

## I. 건강과학대

### 양 보건대 - 보건복지행정학과

####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여가 및 상담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민경하
  - (2)멘티 : 김현지, 김혜진, 김호근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5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3.30	18:00-20:00	소흘읍	멘토링 활동의 첫 단추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화와 프로그램 및 미션선정부터 멘티들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야기 위주로 활동을 진행
4.30	15:00-20:00	대학로	두 번째 멘토링 활동부터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멘토 뿐만 아니라 멘티들의 공통된 취미인 연극이라는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것으로 활동을 진행
5.21	17:00-21:00	뚝섬유원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강유원지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짐
6.2	15:00-17:00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u&i 학습유형 검사를 통해 자기자신들의 학습습관을 제대로 알고 향후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짐
6.9	16:00-17:00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버크만 리포트 활동을 통해 자기자신의 성격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파악하고 상대방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토의 해보는 시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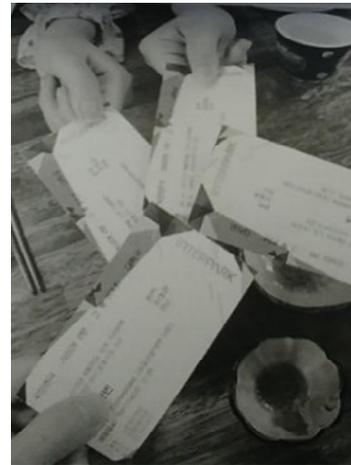
## 2. 멘토링 소감

### 민경하 멘토

2017년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한 학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이 끝난 후 지금 제 손에는 보람과 아쉬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멘티의 역할을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갈피를 잡지 못했고, 선뜻 출발선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출발해서 멀리 가있는 것에 초조해하지 않았고, 출발이 늦었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활동 하나하나를 함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그 활동의 목적을 확실히 하자고 생각했고, 그 결과 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팀보다 우수하게 활동을 진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활동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멘토인 저와 멘티 분들이 다음모임을 기대할 만큼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멘티들도 저의 멘토링 활동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미션으로 주어졌었던 4가지 모두 수행하여 멘티들에게 좋은 활동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결과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동시에 취미/여가 활동이나 상담활동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모두 충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공과목 및 외국어 등을 통한 학습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학습습관, 성격, 행동습관 등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선정하여 피드백을 상시 수행하면서 계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멘티들이 고민했던 부분들도 점차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멘티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멘티들에게 유익한 분야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수행한 취미/여가 활동을 정확히 구분하여 놀 때는 놀고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 되었던 것 같아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거듭하면서 멘티들이 다음 학기의 멘토링 활동에 대해 궁금해 하고 또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멘토와 멘티로서 만난 그 친구들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고려하여 좀 더 세세하고 유익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멘티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제게도 보람이 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한 학기의 멘토링을 마무리하면서 해준 멘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저로서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개인적인 추억도 만들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후레쉬 피플 - 보건의료산업학과

###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학습 및 여가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박현식

(2)멘티 : 이정빈, 안수연, 차병호, 전지영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4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4.10	방과후	의정부	여가활동
5.10	점심시간	교내	학습활동
6.13	점심시간	교내	학습활동
6.14	점심시간	공원가든	여가활동

## 2. 멘토링 소감

### 박현식 멘토

저희 팀의 활동 목표는 선후배간의 친목도모였습니다. 친목도모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멘토인 제가 13학년이기 때문에 멘티인 17학년 후배입장에서는 선뜻 친해지기 쉬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 조금이라도 벽을 허물고 친해지고, 또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멘토로서의 저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조는 두 번의 학습활동과 여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의 학습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특강과 저희의 전공과목 공부를 했고, 두 번의 여가활동은 의정부 그리고 학교 내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활동들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고, 멘티 후배들과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는 괜히 신청한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하고 멘티 후배들을 만나다 보니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한 학기를 뒤돌아 봤을 때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의 입장에서 멘티들과의 활동으로 후배들과의 친목을 쌓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멘티의 입장에서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팁들을 얻으면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합이 10수 - 스포츠의학과

###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학습 및 여가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김성현

(2)멘티 : 강성민, 이정인, 김지환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5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3.30	12:00-13:20	맥도날드	처음 멘토-멘티가 모여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5.11	16:30-17:30	학생식당	멘토링 WEEK에 멘티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학과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짐
5.12	12:30-13:00	학생만족센터	함께 촬영한 사진을 학생만족센터 사진 공모전에 제출
5.31	12:30-13:20	미래관 303호	스피치 특강을 함께 들으면서 배우고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눔 목표했던 학습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6.1	17:30-21:40	양주 메가박스	여가 활동으로 다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식사 기말고사 관련해서 대화를 나눔 목표했던 여가관련 활동 진행

## 2. 멘토링 소감

### 김성현 멘토

한 학기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취지에 맞게 후배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후배들과 제가 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다 남자들이라 처음에는 과연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오히려 남자들끼리였기 때문에 금방 친해 질 수 있었고, 형식적인 멘토, 멘티가 아니라 정말 친한 형 동생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배들이 학교에 잘 적응을 하였고, 학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바로 질문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후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교내에서 마주치면 단순히 인사만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은 잘 듣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다음 수업 줄지 말고 잘 들어라' 같은 대화들이 이어졌고 후배들 또한 저를 보면 반갑게 와서 인사하고 선후배라는 딱딱한 관계에서 정말 서로 의지하는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가 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학교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휴학을 마치고 이번 학기 복학을 했는데,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학교에 다시 적응 할 수 있게 되었고, 2년 동안 학교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멘티들뿐만 아니라 멘토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멘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참가해서 더 열정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융합과학대

## II. 융합과학대

### 킹멘티스 - 데이터경영학과

####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학습 및 여가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김준현
  - (2)멘티 : 김소연, 정재홍, 윤혜린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5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3.21	11:30-12:40	학생회관	자기 소개 및 점심식사
4.27	10:00-12:10	취업지원센터	커리어 액츄얼리 활동
5.11	16:30-19:30	담소골	멘토링 DAY 및 단결 활동
5.25	16:30-21:30	의정부 CGV	문화 활동 및 여가 활동
6.13	16:30-20:30	5층 열람실	기말고사 대비 공부 및 스터디 활동

## 2. 멘토링 소감

### 김준현 멘토

1학기 멘토링 활동을 마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멘티들과의 교류와 단결활동을 통해 더욱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즐거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무미건조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 또 하나의 낙이 되었고, 멘티들을 학교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신입생 때 생각도 많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을 더 많이 챙기게 되었고 내가 예전에 실패하고 실수했던 부분들을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1학기 활동을 마치면서 나의 활동을 뒤돌아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2학기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할 것이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또 다시 좋은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 용돈조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경력 및 여가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권승근
  - (2)멘티 : 김민정, 서원호, 조주형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6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3.29	10:00-12:30	카페	멘토링 활동 방향성 정하기
4.9	13:00-18:30	서울 숲	서울 숲, 봄 소풍
5.1	16:30-17:30	학생식당	학습지원센터 멘토링 WEEK
5.14	17:00-21:00	대학로	연극 '쉬어매드니스' 관람
6.7	18:20-21:00	현암 기념관	학습지원센터 차세대 '곡성' 영화관람
6.9	15:00-16:00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버크만 커리어 리포트 프로그램 참여

융합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2. 멘토링 소감

## 권승근 멘토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멘토-멘티 간에 존재했었던 어색함과 무거움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가 학회장이어서, 또 고학번이어서 아무래도 멘티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딱딱한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방향에 맞추지 말고, 오로지 멘티들이 하고 싶은 것,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멘토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멘티들은 항상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가해주었고, 오히려 내가 몰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기도 했다. 나 역시 복학 첫 학기였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새내기 후배들과 함께 공감하고 서로 챙겨줌으로써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는 멘토란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멘토는 가르치거나 혼자서 이끌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멘티와 같은 길을 정해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부담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걸음마를 뒀 수 있는 것을 찾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공감과 격려를 해줄 수 있었고, 의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진정한 팀워크를 느끼게 해준 것에 감사했고 멘티들과도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 관계를 지속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팀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



## 문을 열고 그대가 들어오조 - 미술치료상담심리학과

###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여가 및 상담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전다혜

(2)멘티 : 이상호, 유홍지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5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4.28	14:30-20:20	예술의 전당	전시회 관람, 저녁식사
5.8	16:30-18:00	면학관	전시회 감상, 낙서 나누기
5.10	11:30-12:45	교내	공모전, 점심식사
5.26	12:30-21:30	노원	노원 소규모 모임, 노래방
6.2	15:30-16:30	학생만족센터	학습지원센터 차세대 '곡성' 영화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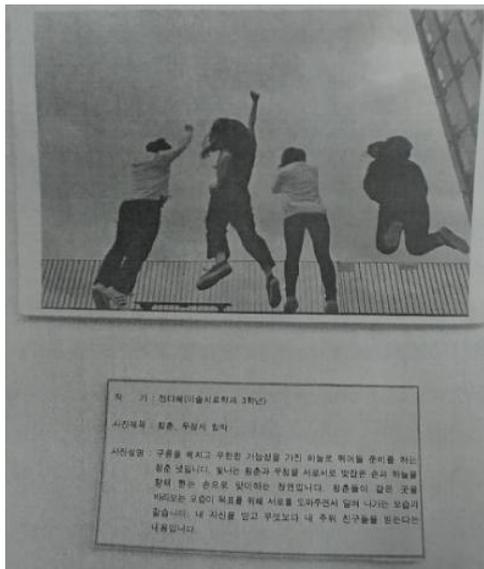
## 2. 멘토링 소감

### 전다혜 멘토

멘토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과 압박감에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고 걱정이 앞섰다. 그전에 멘토링을 해본 경험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된 친구들, 더구나 과 후배들을 멘토링 한다는 것이 꽤나 큰 걱정거리였다. 멘토와 멘티간에 나이차도 별로 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이끌 수 있을까란 생각이 컸었다. 하지만 멘토링 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도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처음 멘티들을 만날 때는 멘티들이 멘토를 별로 못미더워할까 굉장히 걱정이 됐다. 원치 않는 만남에 멘토로서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이제 막 대학생 생활을 하게 된 친구들에게 학교생활의 팁은 커녕 별 볼일 없는 선배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이 노심초사했었지만 다행히 첫 만남은 순조로웠고 처음이라는 어색함은 있었지만 멘토링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와 소소한 고민들, 학과 선후배로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멘토로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가 나에게 가장 큰 숙제였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 갔고 너무 재고 따지기만 했었다. 하지만 멘토링 워크 특강과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었다. 멘토는 멘토 혼자서 멘티들을 이끌고 멘토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멘토링은 함께 하는 것이고 멘토와 멘티는 이름과 위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역할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멘토는 멘티에게 무엇인가 해주려고 애쓰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하는 것이었다. 단지 선배이고 언니이고 누나이고 먼저 학교생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위에서 부여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은 조바심이 만들어낸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이어야만 해'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는 모범생이어야 해'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멘토링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니 더 즐겁고 더 잘 보이고 함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 동안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 섣뚱 도전해보지 못한 것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융합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 서로 배우고 알게 된 것도 많고 느낀 바도 많아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멘토링이었기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보람찼다. 심지어는 잠시 잊고 나태해져 있던 자신에게 다시 힘을 주고 예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멘티들에게 학교생활 적응의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멘토 역시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다. 물론 너무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계획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전공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제 갓 입학한 후배들에게 있어 더 폭넓고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 학과나 전공과 관련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해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때는 규정지어진 선후배나 멘토-멘티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로서 친구로서 함께 공부하는 동무로 더 즐겁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관심사가 비슷한 듯 다양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고 관심분야를 높일 수 있는 상부상조의 돈독한 사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 혼자서는 쉽게 용기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헤맬 때가 많다. 혹자는 그것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물론 그 말에 동의는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멘토링 활동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멘토링은 먼저 손도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귀땀해주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2017학년도 1학기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 생명과학대

### III. 생명과학대

#### Spark - 의생명과학과

##### 1. 멘토링 개요

1) 활동 미션: 학습 및 여가

2) 멘토 및 멘티

(1)멘토 : 황준성

(2)멘티 : 송석중, 이시원, 조승혜, 박정민

3) 멘토링 활동

(1)활동 횟수: 총 5회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4.4	16:30-17:45	과학관	멘토-멘티활동의 첫 번째 목적인 전공과목 스터디 - 멘토가 진행하고 있는 실험을 멘티들이 참관
5.2	15:40-16:30	과학관	실험실에 모여 실험의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실험내용 설명, 앞으로 볼 sample의 상태를 설명해주며 미리 좋은 상태의 sample을 관찰
5.10	16:00-17:30	면학관	경기도 포천시 산사원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짜고 일정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짐
5.19	13:00-19:00	산사원	멘토-멘티 활동의 두 번째 목적인 여가 활동을 위해 학교가 위치한 포천의 산사원에 방문 학교 주변에 자연경관을 몸소 경험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키움
6.7	16:30-17:00	과학관	멘토-멘티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초청강사 특강 수강 - 빅데이터를 주제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체험

## 황준성 멘토

의생명과학과 학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학생으로서 17학번 새내기 후배들과 친해지고자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멘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후배분도 계셔서 당황했었던 기억도 있지만 모든 멘티 후배분들이 성격이 밝았고, 멘토링 활동을 계획할 때에도 모두 적극적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고 또 13학번이다 보니 후배분들이 너무 굳어있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편해져서 고마움을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 때는 제가 진행하는 발생학 실험 샘플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3학년 실험 내용인데 다행히 흥미롭게 잘 들어주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는 여성생식의학, IVF센터와 같이 생식의학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진로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몰랐던 멘티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는 중요한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배가 후배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줄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우리 학과의 다양한 진로방향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중간고사가 끝난 뒤 이어진 만남에서는 일전에 송석중 멘티가 의견을 내었던 산사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학생만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가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포천시 산사원은 포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새내기 후배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후배들은 조금 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산사원을 다녀온 후 맛있는 저녁도 함께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날을 계기로 모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멘토링이 다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책임감 없이는 멘토를 섬볼리 해서는 안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학생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넘어서 남게 된 것은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행복했던 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 I.D - 바이오공학과

###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학습 및 상담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전규혜
  - (2)멘티 : 박준영, 박지은, 이경호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4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4.4	16:30-18:30	미래관	1학기동안 멘티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 설정 학습방법 논의
5.2	16:00-18:00	미래관	멘티들의 학습진행상황 점검 및 멘토-멘티간 친목도모
5.10	15:00-17:00	미래관	멘티개인 각각의 고민해결 및 멘토-멘티간 친목도모
6.8	14:30-18:00	취업지원센터	버크만 진단 및 취업지원센터활동 학습지원센터 주관 강연듣기

### 2. 멘토링 소감

#### 전규혜 멘토

멘토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멘토 신청 소식을 듣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일단 지원하게 되었지만, 처음 멘티들과 만나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부터 프로그램이 끝나기 직전까지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도움이 되었어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멘토-멘티 모든 활동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멘티 친구들에게는 그저 멘토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을 것 같다. 내가 처음 입학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동기와는 친해질 기회가 많았지만, 선배라는 단어만으로도 어려웠고, 선뜻 먼저 다가가기 힘들었다

생명과학대 우수 멘토링 팀

그러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 멘토와 멘티가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고, 또 같이 해 나가야 할 목표도 정해져 있으니 좋으나 싫으나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선후배간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당연했다. 처음에는 내가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멘티 친구들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매번 모임을 갖기 전, 나 혼자 오늘 활동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었고,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1회 차 만남 때에는 멘티들에게 1학기 동안 멘티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멘티들의 목표를 보며 같이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논의했고, 학교생활 어려움 등에 대해 언니, 누나로서 조언해주었다. 2회 차 만남 때는 멘티들의 목표에 대한 학습 진행상황을 같이 점검해 주었고, 이 외에도 공부 방법 및 멘토-멘티 간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다. 3회 차 만남 때에는 멘티들이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 시작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가 가까워졌다고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4회 차 만남 때에는 버크만 진단 및 취업지원센터 활동과 학습지원센터 주관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생활, 수업, 성적, 이외에도 멘티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 활동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강연 또한 멘토, 멘티 모두 만족했던 시간이었다. 생소한 분야의 강의였지만, 전공 이외의 분야라서 오히려 더 신선하게 다가왔고,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던 시간이라 만족스러웠다. 멘티들이 나를 언니, 누나처럼 생각해줘서 나도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처음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완벽히 100%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멘토링이란 내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멘티들이 나에게 맞춰가고, 나도 멘티들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서 나로서는 얻는 것이 더 많았던 한 학기였다.



## 대인고 - 식품생명공학과

### 1. 멘토링 개요

- 1) 활동 미션: 학습 및 여가
- 2) 멘토 및 멘티
  - (1)멘토 : 전소현
  - (2)멘티 : 박현배, 전지현, 황대웅
- 3) 멘토링 활동
  - (1)활동 횟수: 총 6회

### (2)멘토링 활동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내용
3.25	17:00-22:30	수원월드컵경기장	U-20 축구 경기 관전
3.27	14:00-16:30	짬뽕치킨	멘토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점에 가서 대외활동에 관한 이야기와 멘티들이 원하는 멘토링 활동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5.1	16:30-17:30	학관	멘토링 간담회 참여
5.18	12:00-13:00	미래관	여행 특강을 같이 듣고 하계방학 중 수상레저 여행 계획
6.7	14:00-17:00	카페, 도서관	식품학개론 같이 공부하기
6.19	15:00-17:30	과방	일반 생물학 기말고사 대비 공부 및 방학계획 세우기

## 전소현 멘토

식품생명공학과의 경우 멘토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 취미, 거주지, 대외 활동 경험 등을 담은 자기소개 ppt를 만들어서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후 멘티친구들이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멘토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멘토-멘티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취미로 축구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현재 대외활동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멘티 친구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외 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따라서 취미생활과 대외활동에 대한 상담 모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멘티친구들이 학기 초에는 동아리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멘토로서 몇몇 동아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의 조언을 귀담아듣던 멘티 중 한 친구는 저와 같은 학과 학술동아리에 또 다른 친구도 과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아리, 같은 학생회를 하다 보니 저희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첫 멘토링 활동은 저희의 공통 관심사인 축구경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무료 티켓 덕분에 멘티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멘티 친구들이 제가 하고 있는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서포터즈로서 활동하고 있는 치킨프렌차이즈 가게로 향했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서포터즈의 종류와 대외활동과 관련한 정보, 조언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멘토링 방향을 다시 한 번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만남에서는 멘티들이 원했던 방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특강 프로그램을 함께 들으면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상레저여행을 가자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기말고사기간에는 대학교 첫 시험을 맞이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학년 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멘토로서 뿌듯했습니다. 아직도 학기 초에 학생회일로 많이 못 챙겨준 점이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멘티들 덕분에 학기 초반부터 다른 멘토링팀 보다 빨리 친해져서 어색함 없이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고맙습니다. 부족한 멘토였지만 잘 따라와 준 멘티에게 다시 한 번 고맷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